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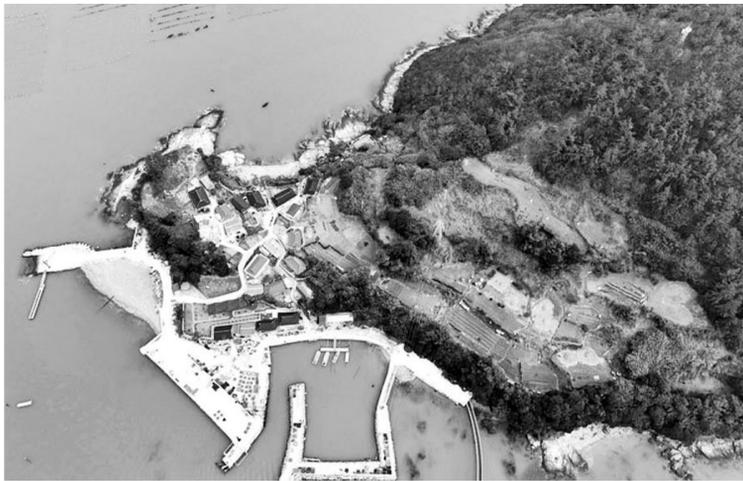
# 완도 예약도 '예술의 섬'으로 거듭난다

### '관광 명소화 사업' 용역 마무리 빈집 예술가 작업 공간 꾸미고 정원·명상 공간·조각 공원 조성

완도 보길 예약도가 문화와 치유가 어우러진 '예술 섬'으로 거듭난다. 완도군은 최근 '보길 예약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20가구가 사는 보길면 예약도는 돌담길 등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다. 완도군은 예약도가 지닌 문화적 요소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약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완도군은 투자 심사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도군 보길 예약도가 2027년까지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예술 섬'으로 거듭난다. <완도군 제공>

가는 야간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했다. 또 예약교(해상 인도교)가 준공되면서 보길 예약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완도군은 섬마다 지닌 관광 자원을 치유와 연계해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길 예약도는 섬 전체가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으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에서 착안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보길도는 예술리 해수욕장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치유할 수 있는 '소리 치유', 운선도 유적을 연계한 '문학 치유', 예약도는 '예술 치유'를 주제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보길 예약도를 주민들의 삶, 자연, 예술이 어우러지는 예술 섬으로 조성해 섬과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 향화도항·완도 당목항 시설 확충 본격화

### 목포해수청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영광 향화도항과 완도 당목항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영광군 향화도항의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과 어업부지 확보,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어항 시설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설계비 14억원을 투입해 향화도항 건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향화도항은 2021년 9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현재 외곽시설이 전무하고 재적 어선 대비 접안시설이 부족해 어민들의 안전과 어업활동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지난 2023년까지 기본설계를 시행해 산정된 총사업비 476억원을 투입하는 기준 방파제 285m, 물양장 170m, 호안 224m, 부잔교 3기 등 어항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

탕으로 외곽시설, 접안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계획을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공사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 국가 어항인 완도 당목항도 5월부터 설계비 약 14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당목항은 1972년 기본시설이 완공돼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다가 2021년 9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설계파고 증가로 항내 정온이 확보되지 않고, 재적 어선 대비 접안시설이 부족해 어민들의 안전과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목항에는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 기준 방파제 390m, 물양장 88m, 선착장 확장 27m 등 어항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조동영 목포해수청 어항건설과장은 "시설이 확충되면 수산업 활성화 등 어항 이용 여건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이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보내고 듣는 '3세대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한 주민 교육을 하고 있다.

# 해남 공룡박물관 6월 한 달간 다양한 '공룡의 날' 기념행사

### 감성 광대 서커스·마술 무대 등 매주 토요일 어린이 가족 공연

해남 공룡박물관이 6월1일 '공룡의 날'을 맞아 한 달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운영한다.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있는 공룡 박물관은 6월 한 달간 '공룡의 날' 기념행사를 펼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6월1일 모래 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8일 감성 광대 서커스, 15일 버블 마술 공연, 22일 배트맨 마술 공연, 29일 버블타이거즈의 마술 공연이 진행된다.

공룡박물관에서는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체험과 미디어 스케치, 증강현실(AR) 체험, 플레이콘 만들기 무료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공룡박물관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된 알로사우루스 화석을 포함한 공룡골격 화석 등 46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공룡화석지에는 세계 최대 발크기(35cm)와 발자국 개수(443점) 보행렬(7.3m)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있는 공룡박물관 테마공원. <해남군 제공>

익룡 발자국 화석이 있다.

지난해 개관한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과 금호호 주변에 펼쳐진 330만㎡의 넓은 야외 공원도 볼거리다.

한편 국제기념일인 '세계 공룡의 날'은 지난 2019년 미국의 브루크스자연사박물관 등이 공룡의 날을 명명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군 휴대전화 마을방송 운영...난청 해소

영광군이 마을방송을 잘 듣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휴대전화 방송을 도입했다.

영광군은 '3세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마을방송 난청 지역과 울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지난 3월 구축했다. 영광군은 마을 이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 교육을 하고 있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방송을 녹음하면 마을방송 등록 주민들의 휴대전화에 전달되는 체계이다.

전화를 받지 못해도 시차를 두고 다시 전화를 걸어 전할 수 있다. 수신 결과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마을 방송 대표번호 '350-2100'으로 전화를 걸면 '다시 듣기'도 할 수 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기존 마을 방송의 여러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마을 방송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긴급재난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목포 대반동 백사장서 '뮤직피크닉' 공연

### 6월1·8·15일...9개팀 출연

목포 대반동 백사장에서 오는 6월1일 8일, 15일 다양한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목포시는 이 기간 대반동 백사장 일원에서 목포 뮤직피크닉 두 번째 공연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무더운 날씨를 살피며 무대는 기존보다 30분 늦춘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한다. 1일 무대에는 하모니카, 바이올린, 통기타 등 악기

연주와 포크, 클래식, 트로트 등 9개 팀이 오른다. 지난 25일 열린 첫 번째 공연에서는 풍선 공연과 문체 풀이 등 청중 참여 행사를 함께 했다. 새롭게 단장한 대반동 백사장을 찾으면 스카이워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반동 백사장이 흥겨운 음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수 목 장

#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